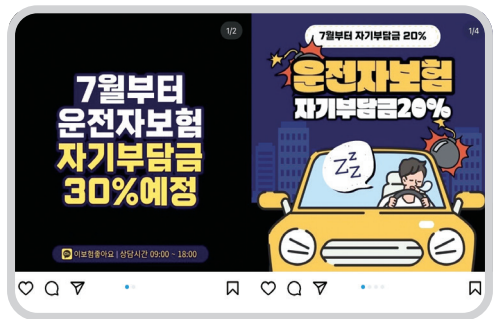


운전자보험 ‘절판 마케팅’에 엄중 대응

손보업계, ‘자기부담금 신설’ 미확정
영업 현장 “지금 가입 안 하면 손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악용한 광고 성형
금감원, 보험사 대상 공식 확인 돌입



일부 보험판매인들이 SNS에서 운전자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사진은 SNS 갈무리.

야 하는 것은 아니다. DB손해보험이 가지고 있던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이 올해 초 해제되면서 다수의 손보사가 운전자보험 시장에 뛰어들었다.

게다가 안전운전과 보행자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하고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범용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커졌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 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됐다.

이후 손보사들이 모객을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 한도를 경쟁적으로 높였고,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비판과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장이 과열되자 금융당

국은 보험업계에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과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업계는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손보사 중 7월부터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 20%를 적용하겠다고 공식화한 곳은 현재까지 없으며, 손해보험협회도 최근 “자기부담금 설정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구체적인 출시계획 및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손보사들의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신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일부 영업 현장에서 절판마케팅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보험판매인들은 SNS에서와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기부담금 신설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절판마케팅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상품 및 운용은 기업의 자율 사항이라 금융 당국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다만, 자기부담금을 명확히 신설할 계획이 없는 보험사가 이를 이용해 절판마케팅을 벌인다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보고 좌시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현철 기자

수도권 전세가율 하락세 속 용인 기흥구 ‘104%’

〈신축 빌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신축 빌라(연립·다세대)의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80% 이상을 웃도는 ‘강동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신축 빌라 평균 전세가율은 최근 3년 동안 눈에 띄게 하락했다.

서울 평균 전세가율은 2021년 86%, 2022년 83%, 2023년 68%로 나타났다. 경기는 같은 기간 87%, 82%, 73%, 인천은 95%, 85%, 50%로 수도권 평균 전세가율이 하락했다. 통상 전세가율 80%가 넘는 주택은 강동주택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

경기의 평균 전세가율은 2021년 하남시(113%), 수원 팔달구(101%), 고양 일산동구·수원 영통구(100%), 부천시(99%) 순으로 높았으며, 2022년에는 화성시(107%), 오산시(99%), 연천군(98%), 의왕시와 안산 단원구(97%), 안산 상록구와 용인 처인구(92%) 순이었다. 올해는 용인 기흥구(104%), 의왕시(91%), 고양 덕양구(81%)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2021년 남동구(100%), 연수구(99%), 계양구(98%), 서구(95%), 부평구(93%) 순이었으며, 2022년에는 계양구(100%), 부평구(93%) 순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신축 빌라 거래 중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발생한 건을 분석한 결과,

80% 넘으면 ‘강동전세’ 위험 커
의왕시 91%, 고양 덕양구 81% 순
인천, 전세사기 여파로 수치 없어
전문가 “전세가율·임대인 체납 등
꼼꼼하게 확인 등 세입자 주의”

평균 전세가율 80% 이상인 매물의 거래량 비중은 서울이 2021년 81%에서 2022년 74%로, 경기는 78%에서 66%로, 인천은 90%에서 53%로 각각 감소했다. 올해는 서울과 경기 각각 51%, 42%로 나타났다.

경기의 경우 2021년 고양 일산동구, 포천시, 김포시, 동두천시, 수원 영통구, 수원 팔달구, 연천군, 포천시, 하남시의 경우 신

축 빌라 매물 중 전세가율 80% 이상 매물의 거래량이 100%를 차지했으며, 부천시, 시흥시는 97%, 남양주시 96% 등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동두천시, 성남 중원구, 시흥시, 안양 동안구,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각각 100%, 안산 단원구는 92%, 수원 권선구는 91% 순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고양 덕양구, 용인 기흥구, 의왕시가 각각 100%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2021년에는 강화군, 남동구, 연수구가 각각 100%, 계양구는 96%였으며, 2022년에는 계양구 100% 부평구 86%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매매와 전세 수요가 없어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 실장은 “수도권에서 전세가율이 80%가 넘어가는 신축 빌라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전세금 미반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면서 “새로운 전셋집을 찾을 때 주택의 전세가를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세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성진 기자

경기지역 중소기업 업황전망 SBHI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구분	2022년		2023년					전월 대비	전년 대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국(a)	86.1	77.7	77.6	83.1	80.7	83.8	81.1	△2.7	△5.0
경기지역(b)	86.3	81.4	81.6	82.8	82.6	89.1	84.1	△5.0	△2.2
제조업	82.4	82.8	79.1	83.9	83.2	88.0	82.7	△5.3	0.3
비제조업	90.6	80.0	84.2	81.7	82.0	90.4	85.5	△4.9	△5.1
건설업	86.1	80.6	78.3	77.8	75.0	83.3	75.0	△8.3	△11.1
서비스업	90.9	79.9	84.7	82.2	82.7	91.1	86.4	△4.7	△4.5
전국대비(b-a)	0.2	3.7	4.0	△0.3	1.9	5.3	3.0		

6월 경기지역 SBHI, 전월 대비 5.0p 하락

〈경기전망지수〉

84.1로 집계… 전국은 83.8에서 81.1
8.3p 떨어진 건설업, 가장 크게 줄어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6월 경기전망지수(SBHI)가 전월 대비 하락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종하)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관내 574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2023년 6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6월 경기전망지수(SBHI)는 전월 대비 5.0p 하락한 84.1로 나타났다. 전국은 전월 83.8에서 81.1로 2.7p 하락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의 6월 경기전망지수는 75.0으로 전월 대비 8.3p 하락해 업종 중 가장 큰 폭 줄었으며, 제조업의 6월 경기전

망 지수는 82.7로 전월 대비 5.3p(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 서비스업은 86.4로 전월 대비 4.7p 하락(전년 동월 대비 4.5p 하락)했다.

항목별로는 전월 대비 전망 수치는 내수판매 4.1p 하락, 수출 5.0p 하락, 영업이익 4.7p 하락, 자금 사정 1.7p 하락, 고용수준 0.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요인(복수 응답)으로 내수 부진(70.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건비 상승(30.1%), 원자재 가격상승(24.4%), 업체 간 과당경쟁(23.7%), 인력확보 곤란(22.1%)의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은 전월 대비 1.4p 하락한 69.8%로 나타났고, 중기업은 전월 대비 0.9%p 하락한 75.8%로 조사됐다. 이지만 기자



SRT 평택지지역 장기 방치 자전거 수거·처분 안내 플래카드.

SR제공

무단 방치한 자전거 정리하기 전에 찾아가세요

SRT 평택지지역, 통행불편 해소 위해
오는 15일까지 자진 수거 기간 운영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역사 자전거보관소 내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정리에 나선다.

SRT 평택지지역(역장 채봉석)은 역사 자전거 보관소에 장기간 버려지고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미관을 해치고 고객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

까지 자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무단 방치된 자전거가 자발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현수막과 안내문을 부착해 자진 이동을 안내하며, 기간 내에 수거되지 않은 자전거는 처분할 예정이다.

채봉석 SRT 평택지지역장은 “자진 수거기간이 끝나는 대로 수거되지 않은 자전거를 일제히 정비해서 자전거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보다 쾌적한 역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만 기자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술 매칭’

경기중기청, R&D 역량 강화 사업 공모
대학·연구기관 보유 신기술 지도·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상창)은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신기술 도입 지원을 통한 R&D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신성장 기술매칭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신성장 기술매칭사업(이하 기술매칭사업)’은 경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신기술을 중소기업과 매칭해 기술 지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중기청은 지난 2021년 신성장기술매칭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모집해 왔으며, 3년간 204명 전문가의 224개 신기술을 모집했다.

이지만 기자

올해는 초격차 10대 분야,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등 최첨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 모집을 위해 경기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대학·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의 기술을 모집하고 있으며, 목록화해 신기술 매칭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고급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전문가를 전국의 대학교 및 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기술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적절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16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은 “본 사업이 신제품 개발, 사업 확장 등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만 기자

임대주택 입주민 위해 ‘ଛ흠·꼼꼼한 주거 서비스’ 발굴 나선다



입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제공

LH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김요섭)는 1일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협회장 윤연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지역 특화 주거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LH 경기북부본부-도사회복지관협회
연계·소통을 위한 협력 협약 체결
지역 특성, 수요 반영한 복지 실천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는 도내 88개 사회복지관의 컨트롤타워로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내 11개 영

구 임대단지 안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 중으로 입주자에게 촘촘한 복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지역 특성과 입주자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기관 간 활발한 자원 연계와 소통을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요섭 LH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이번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와의 협약을 계기로 누구보다 입주민 가까이에서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복지관을 통해 입주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면서 다양한 주거 사회서비스가 발굴, 지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